

감정 기반 AI 책 추천 서비스

경영학과 박소연

목차

01. 추진배경

04.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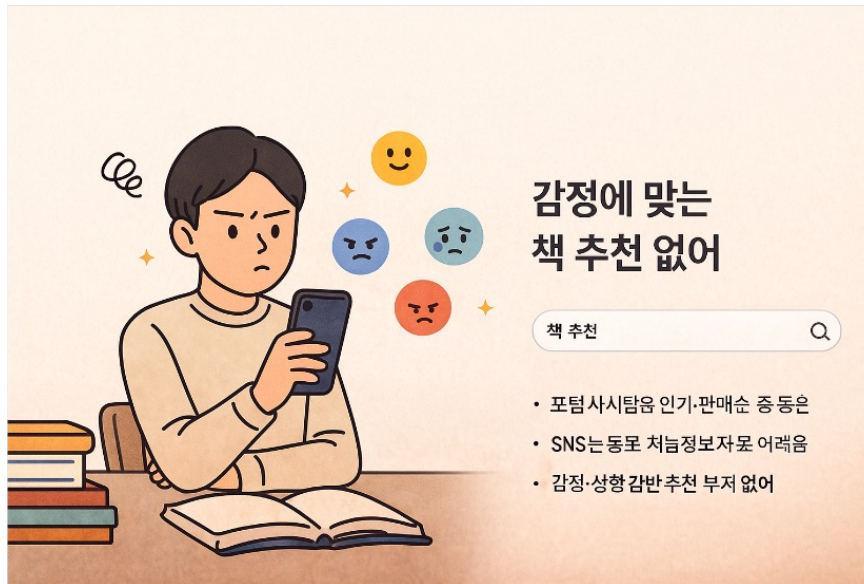
02.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

05. 기대 효과

03. AI 기술 활용, 핵심기술

06. 느낀점

추진배경



문제의식 & 만들게 된 이유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데 감정은 독서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슬플 때 읽고 싶은 책과 기쁠 때 읽고 싶은 책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책 추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짧은 동영상으로도 유익하고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의 책이 마음을 위로하거나 더 다양한 생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사용자의 감정과 취향을 분석하여 책을 추천하는 AI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책 추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장르, 판매량 등 단순 키워드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감정이나 취향을 반영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또한 SNS에서도 책 추천을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검색하는 키워드가 방대하고 어려워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렵다.

관련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출판사가 홍보 비용을 지불하면 추천을 하는 식으로 판매, 광고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

생성형 AI 기술 활용, 핵심기술



생성형 AI 기술 활용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감정 표현을 해석하고,
해당 감정에 적합한 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천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기술

앱에서 오늘의 기분이나 최근 관심사를
문장으로 입력하고 AI가 감정을 분류하고
키워드나 테마에 맞는 책을 추천한다.
추천이유와 책 내용을 요약, 구매 링크를
넣어 책을 추천해주면 사용자는
추천도서를 확인하여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앱 소개


감정 선택
세부 감정 선택
장르/분량 선택
추천 버튼 클릭
책 추천
표지·평점 확인
구매 링크 이동

감정으로 고르는 책 한 권

지금 내 마음에 딱 맞는 분위기의 책을 시가 골라주는 작은 서가

1.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기쁨/설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2. 어떤 책이 끌리나요?

장르를 골라 주세요.

소설


소설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상관없음

국내/해외 작가 선호가 있나요?

상관없음

☒ 추천 책의 표지 이미지를 보고 싶어요

 감정에 맞는 책 추천 받기

기대효과

사용자는 복잡한 검색이 사라져 시간이 단축되고 자신의 기분에 맞는 책을 쉽고 빠르게 찾아 만족도가 올라간다. 또한, 불필요한 도서 구매가 감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위로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사회, 기업에게는 출판사는 베스트 도서가 아닌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던 도서도 판매하고 신규 독자층 확보하여 매출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추천 방식 확장 아이디어

랜덤 책 추천 모드

→ '오늘의 랜덤 책'처럼 가볍게 새로운 책을 만날 수 있는 기능

유명인/작가 스타일 기반 추천

→ "정세랑 느낌의 책", "히가시노 게이고가 좋아할 책"처럼 스타일 기반 추천

책 표지 분위기 기반 추천

→ 표지 색감/톤을 기반으로 비슷한 분위기의 책 추천 (예: 파스텔톤 책만 모아서 보기)

사진 기반 추천 기능

→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의 분위기와 색감에 맞는 책을 추천

음악 기반 추천 기능

→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분위기를 분석해 비슷한 감성의 책을 추천

독서 취향 DNA 분석 기능

→ 사용자의 독서 기록을 분석해 '나만의 독서 취향 DNA'를 생성하고 정교한 추천 제공

느낀점

AI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하나의 '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과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필요를 기반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